

‘모범 불자기업’ 이 우리에게겐 초일류

불제대원기업을 가다

불제대원기업의 주력 상품은 자체 개발한 법당 안팎 연등용 전선과 전구다.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슬기와 용기를 얻어 불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모범 불자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늘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다짐으로 작업에 임한다.

불제대원기업의 모토는 ‘모범 불자기업’이다. 또 자부심이며 늘 기도하며 발원하는 사업체가 돼야 한다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불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부처님의 제자(佛弟子)라는 의미와 함께 재앙을 물리친다(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사찰의 재앙을 막아내는 일을 하는 기업이다. 불제대원기업의 시작이 사찰에서 연유했기 때문이다.

불제대원기업 오대권 대표. 어린 시절 김포 금정사를 놀이터로 생각할 만큼 자주 갔다. 갈 때마다 법당의 부처님께 납죽 절을 했었다. 삼성, LG 등에 안정장구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오 대표는 1987년 평소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사업체를 접었다.

분노를 삭이기 위해 산을 자주 찾았다. 이 산 저 산 오를 때마다 절에 들르게 됐다. 절에서 스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법당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때도 많았다. 그렇게 산을 다니면서 마음이 진정되어 갔다.

어느 날, 어김없이 법당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고요한 기운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좋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떴다. 그때 오 대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전선’이었다.

길게 늘어진 전선에 전구가 수십 개 연결돼 있었는데 전선이 너무 얇았다. 전선과 전구의 전압도 맞지 않았다. 손으로 전선을 만져보니 곧 탈 것처럼 뜨거웠다.

오 대표는 그 절의 스님에게 달려가 “스님, 전선이 너무 얇아서 이대로 있다면 탈 수도 있겠네요. 전선을 새 것으로 갈아야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스님은 “무슨 소리냐. 이 전선은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 전선을 팔려면 다른데 가서 알아봐라”면서 타박했다. 그 일이 있고 1주일 뒤 그 사찰에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TV 뉴



좌절과 시름의 늪에서 건져준 불교에 보답

전선 과열로 사찰 화재... 연등용 안전전선 개발

스로 보았다. 오 대표는 이 일을 계기로 사찰 관련 안전장구를 개발하자고 마음먹었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준 불교에 도움을 주자고 다짐했다. 이런 연유로 1989년 10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불제대원기업이 탄생했고, 주력 상품으로 연등용 안전전선을 개발했다. (032-986-0277)

그 사찰 뿐 아니라 많은 사찰이 전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찰 건축물은 목조이고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화재로 타 버리

면 복원이 불가능하다. 모양은 그대로 본 뜰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역사·문화·가치는 재현할 수 없다. 사찰이 전기 안전에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오 대표는 “값싼 외국산 제품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어느 제품을 쓰던지 사찰에 쓰는 전기·안전 장구는 인증된 것, 반드시 K마크가 있는 것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초심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제대원기업 오대권 대표

귀의 삼보하옵고, 사찰 불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전국 사찰 주지 큰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불제대원기업은 1989년 신심 있는 불자들로 구성되어 불교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창업을 하여 ‘불제 연등용 전선(사찰용)’과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사찰용 전구를 주력 제품으로 오늘날까지 꾸준히 제품 개발과 최고의 품질로 생산에서 시공까지 하고 있는 불자기업체입니다.

전국 사찰주지 큰스님들의 도움으로 사찰 초파일 행사를 비롯한 교계의 각종 행사에 저희 불제대원기업이 불사에 동

참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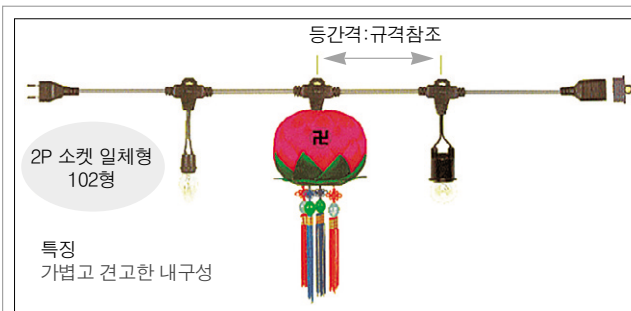
저희 불제대원이 생산하는 제품을 한번 구입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특허청으로부터 화재예방 안전과 견고한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을 받은 제품입니다.

외국 및 타사 어느 제품과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품질이나 가격면에서도 월등히 우수하고 뛰어난으로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서도 대단히 만족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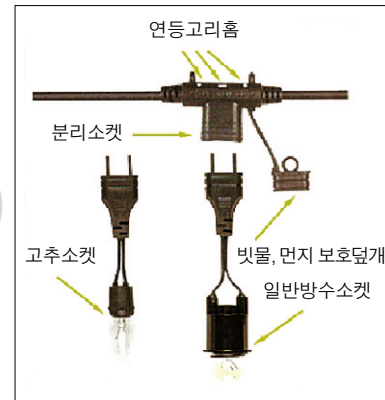
저희 불제대원기업 전 임직원들은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슬기와 용기를 얻어 불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모범 불자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늘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부처님 전에 다짐합니다. 귀 사찰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부처님 전에 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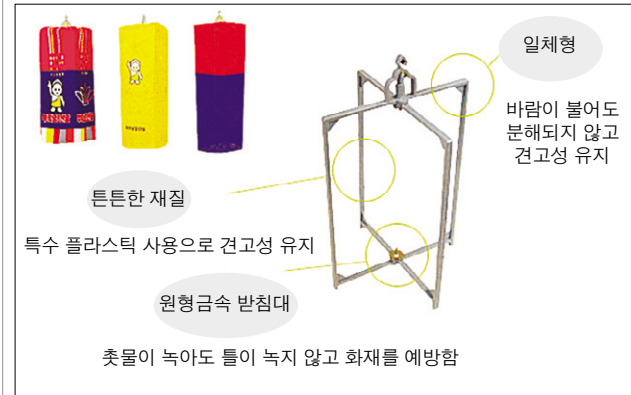
대원의 연등용 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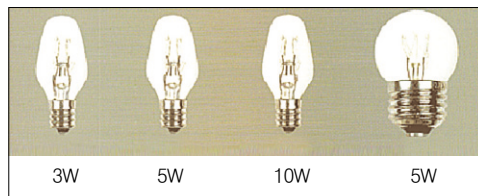
많은 연등에 은은하게 불을 밝히면서도 감전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개발한 것이 연등용 전선이다. 인입선에 소켓을 다는 것이었다.

전선의 파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 화재사고의 위험성을 완전히 가깝게 줄였다. 설치, 수거 시 배선은 그대로 두고 소켓만 분리하면 되므로 작업이 아주 수월하다.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사초롱



사찰용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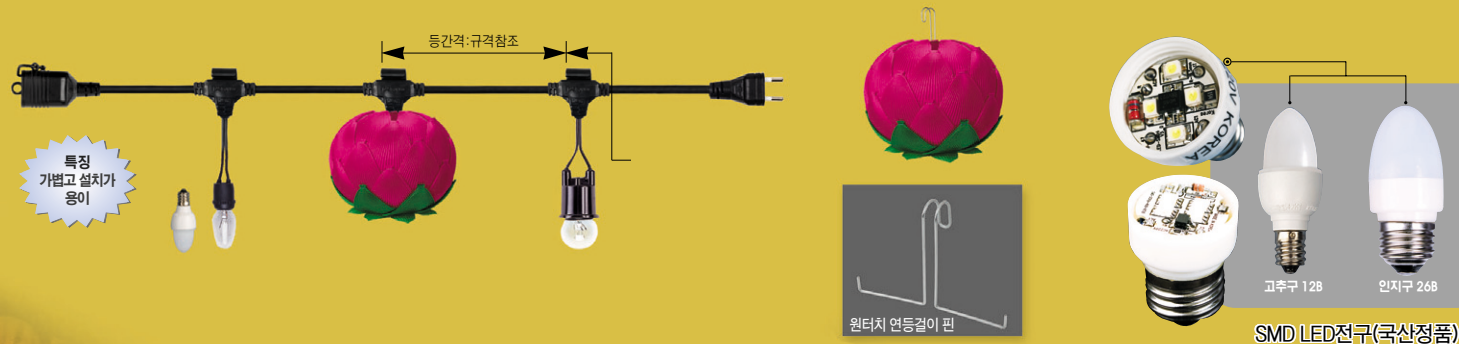


건전지용 초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